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14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엠파이어 윈드 2 및 비컨 윈드 프로젝트 계약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핵심 연안 풍력 핵심 사업 발표**

뉴욕주 주요 경제 기회, 투자, 일자리 창출 추진

연안 풍력 인력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주정부 보조금 발표

**2035년까지 9,000 메가와트 연안 풍력 발전 달성이라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 목표 달성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 포트(Port of Albany)에서 Jennifer M. Granholm 미 에너지 장관, Paul Tonko 하원의원 및 기타 선출직 공무원들과 함께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이 엠파이어 윈드 오프쇼어 유한회사(Empire Wind Offshore LLC) 및 비컨 윈드 유한회사(Beacon Wind LLC)와 각각 엠파이어 윈드 2(Empire Wind 2), 비컨 윈드(Beacon Wind) 연안풍력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건은 각각 에퀴노어(Equinor) 및 비피(bp) 간의 50-50 파트너십이며, 이를 통해 뉴욕주 연안 풍력 개발 사업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뉴욕 주민에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규모의 연안 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친환경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촉진할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보다 심각하게 기후 변화의 영향을 느끼는 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친환경 청정 미래 건설 등 전국을 선도하는 대담한 비전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주정부의 두 번째 연안 풍력 입찰이 마무리되었으며 또한 뉴욕주의 연안 풍력 인력 개발 기관(Offshore Wind Training Institute)에 대한 첫 번째 보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번주 해양에너지관리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BOEM)의 뉴욕주 바이트 최종 경매 공고(Final Sale Notice for the New York Bight)를 비롯해, 전국을 선도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연안 풍력 항구, 제조, 공급 체인을 NYSERDA 2022 계약에 포함시키겠다는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발표](#)와 함께, 이번 행사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9,000 메가와트를 개발하겠다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Jennifer M. Granholm 미 에너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하며 미국의 연안 풍력 산업 발전이라는 Biden 대통령의 목표 달성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Gillibran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올버니에서 청정 에너지 혁신을 기념하는 가운데, 저는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철과 엠파이어 윈드 오프쇼어 유한회사, 비컨 윈드 유한회사 간의 핵심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것은 청정 에너지 및 연안 풍력 개발 부문에서 우리 주정부의 리더십과 혁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과입니다. 저는 청정 에너지 일자리 및 기술을 뉴욕에 계속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안 풍력 개발 부문에서 뉴욕이 가진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희망찬 소식은 산업 확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에너지 인력 훈련, 가장 시급한 기후 문제 해결 지원 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투자하여 뉴욕이 풍력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구안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Doreen M. Harris NYSERDA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을 선도하는 연안 풍력 시장 및 글로벌 풍력 발전 지역으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에퀴노어와 맺은 이번 계약은 우리의 발전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이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청정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하여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60 메가와트 규모의 엠파이어 윈드 2와 1,230 메가와트 규모의 비컨 윈드 프로젝트는 NYSERDA의 두 번째 연안 풍력 입찰 공모의 결과에 따라 2021년 1월 임시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두 건의 프로젝트는 각각 2027년, 2028년에 상업적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뉴욕의 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항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직접적으로 연안 풍력 프로젝트는 지원하고 연안 풍력 공급 체인의 허브로서 뉴욕의 입지를 세울 것입니다. NYSERDA의 프로젝트 자금 지급은 모든 허가, 승인, 건설 완료, 뉴욕 전력 공급을 모두 시작한 후 개시될 것입니다.

최종 프로젝트 계약은 NYSERDA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6억 4,400만 달러 규모의 항구 인프라 공공 및 민간 자금:
 - 올버니 항구에 전국 최초의 연안 풍력 타워 제조 시설 건설을 위해 3억 5,700만 달러

- 뉴욕시가 소유하며 뉴욕시 경제 개발 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NYCEDC)가 관리하는 사우스 브루클린 마린 터미널(South Brooklyn Marine Terminal, SBMT)에 위치한 연안 풍력 저장 및 조립 시설에 2억 8,700만 달러
- 예상된 지출 및 양질의 일자리 5,200만 개 이상 창출, 프로젝트 노동 계약에 890만 달러 이상.
- 고객이 추가 부담해야 할 평균 금액은 한 달 기준 약 0.8 퍼센트 또는 약 0.95 달러입니다. 비용 효율 평균 총 개발 비용인 메가와트 당 80.40 달러를 포함해 총 프로젝트 비용은 NYSERDA의 2018 보조금 대비 7 퍼센트 정도 낮으며, 이는 연안 풍력이 가격 경쟁력을 가진 재생 에너지원으로 이득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iri Espedal Kindem 에퀴노어 윈드 유에스(Equinor Wind U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에퀴노어와 비피는 뉴욕을 위해 3.3 기가와트의 연안 풍력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실질적인 경제 활동과 탄소 감축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뉴욕의 청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뉴욕에서 이토록 활기찬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Felipe Arbelaez 제로 카본 에너지(Zero Carbon Energy)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자산이 있으며 우리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주변 지역사회와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성과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며 엠파이어 윈드 및 비컨 윈드 프로젝트를 열심히 추진하여 앞으로 수십 년간 청정 에너지와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Fred Zalcman 뉴욕 연안 풍력 연합(New York Offshore Wind Alliance)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우리는 2035년까지 9,000 메가와트라는 국가 선도적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은 떠오르는 연안 풍력 산업의 경제적 중심지로서 입지를 탄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NYSERDA와 에피노어-비피 조인트 벤처를 환영합니다. 이번 조인트 벤처는 중요한 상업적 성과를 이루는 한편, 첫 번째 인력 개발 보조금 수혜자로서 첫 번째 세대의 숙련된 노동력이 뉴욕의 혁신적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Jeff Vockrodt 뉴욕 기후 일자리(Climate Jobs NY)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출가스 감축, 연안 풍력 산업 부문에서 뉴욕의 입지 구축,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및 경력 창출 등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양질의 노조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 주민에게 투자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Hochul 행정부와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곧 발표될 차기 연안 풍력 전력 경매에 대한 NYSERDA의 계획이 새로운 공급망에 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Hochul 주지사의 최근 발표와 함께, 우리의 항구 및 기타 필수적 연안 풍력 인프라를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주 Hochul 주지사는 Deb Haaland 미 내무장관, 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와 함께 총 488,000 에이커 규모의 뉴욕 브라이트 내 새로운 지역 여섯 곳에 대한 BOEM 풍력 에너지 경매 공고를 발표했으며, 뉴욕과 뉴저지, BOEM 간의 공동 연안 풍력 공급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연안 풍력 공급망 개발에 관한 공유 비전(A Shared Vision on the Development of an Offshore Wind Supply Chain)"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 임대 지역은 뉴욕과 뉴저지가 개별적인 연안 풍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며, 2030년까지 30,000 메가와트의 연안 풍력을 개발하겠다는 연방 정부의 목표를 지원합니다.

연안 풍력 산업에서 미국의 선도적 지위에 발맞추어, 뉴욕주는 2022년 초 세 번째 주정부 조달 경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2022년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NYSERDA는 2022년 다음 해안 풍력 조달에 착수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최소 2기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이를 통해 주 전역에 걸쳐 총 450만 가구 이상에 해안 풍력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NYSERDA는 이 조달과 5억 달러의 연안 풍력 인프라 투자를 결합하여 주요 인프라 건설을 위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며, 이는 떠오르는 산업에서 뉴욕이 허브로서 활약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달에는 [뉴욕주 전력망 연구\(New York State Power Grid Study\)](#) 권고안에 기반한 연안 전송 접근법 개선, 뉴욕주 내 제조 중점 강화, 포용적 경제 개발 및 기후 평등, 임금 및 프로젝트 노동 계약을 통한 건설 등 뉴욕 노동계와의 긴밀한 관계 강화를 비롯해, 기존 다운스테이트 화석 연료 발전 인프라 목적 변경과 향후 시스템 신뢰성 강화를 위한 에너지 보관소 활용 등 목적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추가 스코어링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안 풍력은 뉴욕의 경제에 신선한 바람을 불고 올 것입니다. 숙련된 인력이 뒷받침된다면, 떠오르는 부문은 앞으로 오랫동안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경제와 환경, 뉴욕의 인력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커미셔너 대행이자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안 풍력 항구는 청정 경제와 경제적 기회 모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윈드 2와 비컨 윈드를 통해 뉴욕주는 더욱 친환경적으로 변화하고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래를 위해 경제적 대비를 하겠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사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와 함께, 뉴욕주는 계속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선도할 것이며 친환경 에너지 및 친환경 일자리를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정부의 야심찬 기후 목표 추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Mark Eagan 경제 성장 센터(Center for Economic Growth, CEG)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도 지역에서 실제로, 함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뉴욕주는 연안 풍력 산업의 선도주자이며, 우리는 Hochul 주지사와 NYSERDA의 비전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를 탈바꿈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약을 체결한 에쿠노어, 비피, 올버니 포트에 축하를 전합니다. CEG는 삼 년전 지역의 연안 풍력 역량에 대한 전 세계적인 홍보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선도적인 투자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CEG는 계속 주정부 및 연방 정부 자금을 활용하여 주도 지역을 연방 풍력 부품 제조의 핵심 지역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연안 풍력 인력 개발 기관

또한 오늘 발표에 따르면, 2,000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연안 풍력 인력 개발 기관 계획에 따라 1차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연안 풍력 인력 개발을 위한 최대 규모의 공공 투자로,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큼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파밍데일 주립 칼리지(Farmingdale State College)와 롱아일랜드 스톤이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력 개발 기관은 연안 풍력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을 목표로 떠오르는 연안 풍력 산업을 지원할 숙련된 노동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인력 개발 기관은 올해부터 뉴욕 주민 2,500명을 교육하고 자격 증명을 제공하여 연안 및 육지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두 개의 선정 제안안은 총 569,618 달러를 지원받아 주도 지역과 뉴욕시의 소외된 지역사회를 비롯해 퇴역군인, 장애인, 저소득자, 노숙자, 한부모 가정 등 우선순위 대상에게 초기 훈련 및 기술 개발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 트로이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HVCC)
- 뉴욕 퀸즈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 LAGCC)

주도 지역의 연안 풍력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HVCC는 최근 용접과 조립 2년 과정을 신설했으며 도심 및 외곽의 소외된 지역사회의 우선순위 대상 중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용접 기술 훈련은 HVCC 소속인 주도 지역 교육 기회 센터(Capital Region 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에서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비학점 훈련 및 학위 과정 역시 칼리지 메인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칼리지는 또한 터빈 부품을 제조하는 지역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숙련된 용접 및 조립 인력을 연결하며, 우선순위 대상자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65명 등 75명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AGCC는 지멘스 가메사(Siemens Gamesa)와 파트너십을 통해 종합 연안 풍력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에서 뉴욕시 메트로 지역에 위치한 연안 풍력 시설 건설, 보수, 유지 등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듭니다. 칼리지는 사업체를 모아 새롭게 인력 시장에 진출하는 사람과 현재 건설업 종사자 간의 기술 격차에 대해 상세히 전달할 것이며, 이들을 도와 최고의 맞춤형 수업 커리큘럼을 완성할 것입니다. 브룩클린-퀸스 워터프론트의 저소득자 총 50명이 연안 풍력 기술자로 직업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Penny Hill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 경제 개발 및 노동 계획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는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미래를 위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접과 조립 부문에서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칼리지는 연안 풍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일자리 훈련을 제공하고 더욱 강하고 탄력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Hannah Weinstock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노동 개발 선임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합적인 연안 풍력 노동력 개발을 통해 우리는 저소득 유색 지역사회 및 과거 소외되었던 지역사회가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주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Elizabeth Yeampierre 업로즈(UPROSE)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정의 리더십 추진 노력과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의 통과 등 수 년간의 노력을 통해 뉴욕은 연안 풍력 부문의 진정한 전국적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CLCPA는 평등, 경제 전반의 배출 가스 감축을 비롯해 브루클린 선셋 파크 등 세대에 걸쳐 오염과 보건 불평등이라는 문제로 고통받아 온 소외된 지역사회에 최소 40% 투자 의무화 등을 법제화했습니다. 선셋 파트는 20년 간 환경 정의를 위한 20년 간 노력했으며 뉴욕시 최대 산업 워터프론트의 "친환경 재산업화"는 평등한 연안 풍력 산업 구축을 위한 공동 거버넌스 모델입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시행 첫 단계부터 모든 개발 단계에 걸쳐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입니다. 업로즈는 미국 역사 상 최대 규모의 연안 풍력 경매가 시행되고 이를 통해 프론트라인 지역사회 리더십 및 주정부 지원이 진전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환경을 위한 시민 캠페인(Citizens Campaign for the Environment)의 Adrienne Esposito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풍력 발전 부문의 큰 발전이며 청정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큰 도약입니다.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커다란 발전을 목격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민들은 뉴욕이 추진하는 전환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친환경 경제 및 선진 청정 에너지를 구축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서 뉴욕의 선도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발전을 위한 길을 마련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NYSERDA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은 NYSERDA가 최근 발표한 [연안 풍력 이해관계자 참여 지침 원칙\(Guiding Principles for Offshore Wind Stakeholder Engagement\)](#)을 비롯해, 공공 부문 및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연안 및 육지 케이블 코리도 분석에서 고려할 주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등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게 비용

효율적인 연안 풍력 개발 접근법을 추진하기 위한 뉴욕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NYSERDA는 또한 올해 새로운 연안 풍력 마스터 플랜 2.0: 딥 워터(Offshore Wind Master Plan 2.0: Deep Water)를 시작해 연안 풍력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뉴욕주는 다섯 개의 연안 풍력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초기 포트폴리오는 총 4,300 메가와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240만 이상의 뉴욕의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뉴욕주에 총 121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젝트는 또한 프로젝트 개발, 부품 제조, 설치, 운영, 유지보수 등에서 6,8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2035년까지 9,000 메가와트라는 뉴욕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안 풍력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뉴욕주 전력 수요의 약 30 퍼센트 또는 약 600호의 뉴욕주 가정이 사용할 전력을 생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약 1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의제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및 송전 프로젝트 102개에 대한 330억 달러의 투자,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68억 달러의 투자, 태양 에너지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의 투자, 친환경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NY Green Bank 방침에 대한 16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0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거의 15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연안 풍력발전으로 9,000 메가와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법(Climate Act)에 의거,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 이익의 40%를 목표로 하고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